



# Indonesia

자카르타지사

## 인니 할랄인증 의무화법 세부시행규칙 발표 지연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경과

인도네시아는 2014년에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령 33호를 발표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기존 민간기관인 울라마위원회(MUI)에서 실시해오던 할랄인증 업무를 정부기관인 할랄인증청(BPJPH)으로 이관할 것을 예고했다. 2017년 10월에 신설된 할랄인증청은 2019년 5월 시행령 31호 발효와 함께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 업무를 시작했다.

할랄인증 의무화는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2024년 10월 17일까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식품을 수입 및 유통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모든 수입식품의 할랄인증이 의무화된다. 돼지, 알코올 등 하람\*성분이 들어간 비할랄 식품의 경우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할랄식품 표기를 통해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할랄인증 대상이지만 유예기간 종료까지 할랄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등록 및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할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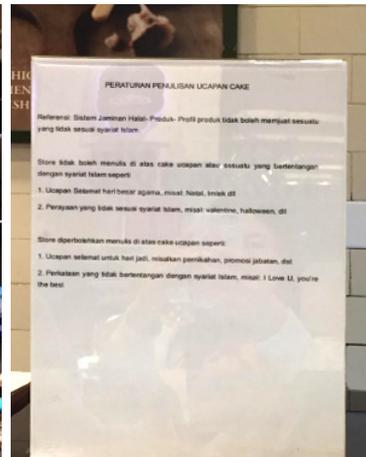
증청의 의견이나 세부 시행규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화장품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 할랄(Halal) : 허용된 것을 의미
- \* 하람(Haram) : 금기된 것을 의미

###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규칙 발표 지연으로 인해 업계 혼란 가중

2019년 5월,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령이 발효되었고 세부적인 기준인 시행규칙이 2019년 10월 17일 이전에 발표되어야 했으나 현재(2019년 12월 5일)까지 미발표 중이다. 기존 할랄인증 기관인 울라마위원회는 2019년 10월 17일부로 신규 할랄인증 접수를 중단한 반면, 신규 할랄인증 기관인 할랄인증청은 할랄인증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나 신청 사이트, 할랄 로고, 인증비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희망업체들은 현재 큰 혼란을 겪고 있다.

### | 크리스마스, 새해 문구 논란이 된 제빵제과점 및 공지 |



이러한 혼란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업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카르타 소재 한국계 제빵제과점의 한 매장에서 부착한 할랄제품 판매에 대한 공지가 청소년, 화교, 기독교 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지의 내용은 해당 매장에서는 할랄 제품만 판매되고 케이크에 성탄 축하, 새해(임렉)인사, 발렌타인 축하 문구를 쓸 수 없으나 결혼 축하, I LOVE U, You're the best는 이슬람법에 저촉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제빵제과점 본사는 “해당 공지는 당사의 공식적

인 의견이 아니며, 해당 매장 직원의 실수로 게재된 내용”이라며 “현재 우리 제빵제과점은 할랄인증 취득을 위해 할랄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건은 해당 지점의 직원이 할랄제품 보장법 2014년 33호 ‘모든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오해하여 발생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매년 이와 유사한 논란이 일자 2018년 12월, 당시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 마루프 아민 의장(현 부통령)이 성탄 축하 등 종교적 축하내용 문구는 이슬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 할랄인증청(BPJP) 기능

- 할랄제품보장 정책 수립
- 할랄인증 관련 공청회, 교육, 홍보
- 할랄감사관 양성
- 할랄제품보장 규정, 표준, 절차 확립
- 할랄감시기관(LPH) 인가
-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감독
- 할랄인증 발급 및 취소
- 할랄감사관 등록

### 할랄인증청(BPJP) 할랄인증 절차

- ① 할랄인증 신청서 작성 후 할랄인증청에 제출
- ② 할랄인증청은 할랄감시기관(LPH)에 검사요청
- ③ 할랄감시기관 소속 할랄감사는 검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④ 할랄감시기관은 결과를 할랄인증청에 전달
- ⑤ 할랄인증청은 울라마위원회(현 할랄인증기관)에 검사결과와 함께 윤리적 할랄성(FATWA) 여부 검토 요청
- ⑥ 울라마위원회 검토 결과 문제없을 시 할랄인증청에서 할랄인증서 발급



### Key Point

###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조속한 할랄인증 준비가 필요한 시점

인도네시아는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으로 인해 할랄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최근 현지 소비자 및 유통업계에서는 할랄인증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조속한 할랄인증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슬람 종교 및 할랄인증 여부에 대해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아 지방 확산 등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